

경영학연구 키워드를 통해 본 한국 경영학연구의 흐름

김 희 천*

김 영 규**

김 태 경***

본 논문은 한국경영학회 창립 60년을 맞이하여 국내 경영학 분야 최초이자 최고 학술지인 경영학연구에 실린 논문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경영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영학연구가 첫 출간된 1971년부터 2015년 5월까지 경영학연구에 발간된 논문 1,618편 모두를 대상으로 1971년부터 1989년, 1990년부터 1999년, 2000년부터 2009년, 2010년 이후의 4시기로 나누어 키워드 어형 분석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연구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971년부터 1989년 사이에는 증권시장, 회계기준 및 원칙, 한국에 맞는 경영교육 및 경영철학 정립, 경영학 이론의 소개 및 한국과 해외 경영 비교 연구 등 한국 경제 성장의 제도적·정책적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반부에 경영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사관계, 경영개선 등 기업 경영 효율화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경영 및 전략 분야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시장 및 브랜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으며, IMF 이전 및 이후에는 위기 극복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불확실성과 경영혁신에 관한 연구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으며,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한편 한류 열풍과 맞물린 한류 및 콘텐츠에 관한 연구와 인터넷에 관한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2010년 이후에는 불확실성,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경영학연구는 높은 수준의 현실적합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키워드의 수명주기 및 연관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경영학 개별 분야 간 연구주제의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통된 주제를 통한 학제간 연구가 보다 발전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참고문헌 중 논문 비중의 증가, 공저자 수 증가 등을 통해서 학문적 엄격성이 높아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한국 경영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형 경영학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경영학연구, 한국 경영학, 키워드 분석

1. 서론

한국경영학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영학회로서 1956년 12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15년

이 지난 후인 1971년 12월 15일에 한국경영학회 학술지인 경영학연구 제1집이 발간되었으며 이를 경영학 분야 국내 최초의 전문학술지로 보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¹⁾ 경영학 개별 분야별 학회와 학술지가 활성화되기 이전, 경영학연구는 한국경영학회와 함

논문접수일: 2015. 10. 05. 1차 수정본 접수일: 2015. 12. 30. 게재확정일: 2016. 01. 03.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hkim01@korea.ac.kr), 제1저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youngkyu_kim@korea.ac.kr), 교신저자

***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조교수(kimtk@suwon.ac.kr)

1) 2015년 12월 17일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는 경영학 분야에 58개, 회계학 분야에 8개가 있으며, 이 중 경영학연구보다 일찍 시작된 학술지는 보험학회지(1964)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출간하고 있는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1966)가 있다.

게 학술적 담론과 연구결과 공유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경영학 개별 분야별 학술지들이 창간된 후에도 경영학연구는 학술지로서 최고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0 - 2013년 4년 동안 자기인용을 제외하고 산정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 면에서 경영학 분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였다.²⁾ 또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문 기구인 학술진흥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술지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 5,600여 개 학술지 중 6위, 경영학 분야 1위를 차지하였다.

1971년 경영학연구 창간 이후 경영학 분야 국내 학술적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술적 연구가 한국 경제 및 기업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설, 설명 및 체계화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기업 경영과 정책 입안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1987년 한국경영학회는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한국경영학의 3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자들은 국내 학술적 연구가 경영학 교육 및 연구의 저변 확대와 고성장 시대 기업이론 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였으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 학술연구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에서 시작하기보다는 해외 이론의 국내 도입 및 실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방 경영학”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국내 현실을 토대로 한 명제보다는 당위적 명제를 전제로 한 이론이 많아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인수 교수는 “한국적 경영학 이론은 아직 이론 탐색단계에 있다. 하루 빨리 이론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경영학회 창립 60년을 맞이하여 국내 경영학 분야 최초이자 최고 학술지인 경영학연구에 실린 논문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학술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영학연구가 첫 출간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경영학연구에 실린 모든 논문(1971년부터 2015년 5월까지 발간된 논문 1,618편)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연구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였으며 학술연구의 주제와 현실 경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키워드의 수명주기 및 연관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경영학 개별 분야 간 연구주제의 복잡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한국 경영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형 경영학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학문의 발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영학계 측면에서는 학계의 지난 발자취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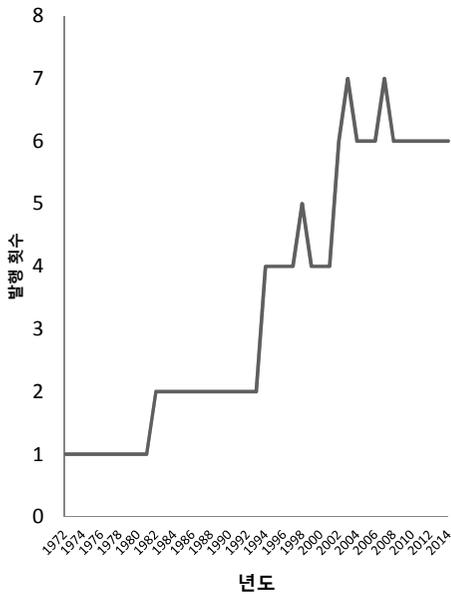
II. 경영학연구 60년과 한국 경영학의 변화

2.1 경영학연구 60년

1971년 12월 15일 한국경영학회는 “경영자의 자세와 철학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경영학연구 제1집을 발간했다. 이로부터 4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경영학연구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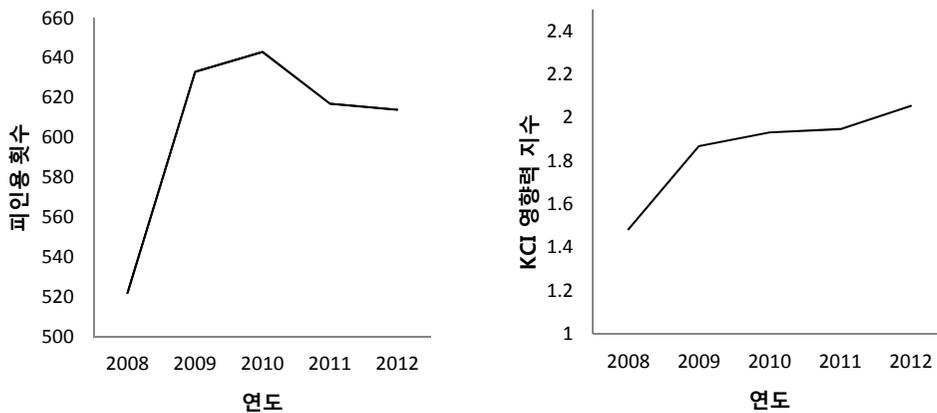
2) 회계학을 포함할 경우에는 회계학연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림 1)은 경영학연구의 연간 발행횟수를 보여준다. 최초 발간될 때 연 1회였던 발행 횟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 4회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그림 1〉 경영학연구 연도별 발행횟수

경영학연구의 피인용횟수와 한국학술재단이 발표한 KCI 영향력지수를 조사해보면 경영학연구의 학문적 영향력이 최근에도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한국학술재단이 영향력지수를 공시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영학연구가 기록한 피인용횟수와 영향력지수를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경영학연구의 피인용횟수는 매년 최소 500회가 넘고, 영향력지수 역시 2.0 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³⁾ 영향력지수 계산에 해당 학술지의 기여도만을 보는 자기인용비율을 보면 2008년 3.45%, 2009년 4.58%, 2010년 4.67%, 2011년 3.08%, 그리고 2012년 4.07%로 전반적으로 5% 이하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연구에 실렸던 논문들이 주로 한국어로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에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경영학 분야 최고 권위지 중 하나인 Management Science의 2011년 영향력지수가 1.73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내 경영학연구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2〉 경영학연구 연도별 피인용횟수 및 영향력지수

3) KCI의 영향력지수(IF)는 해당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를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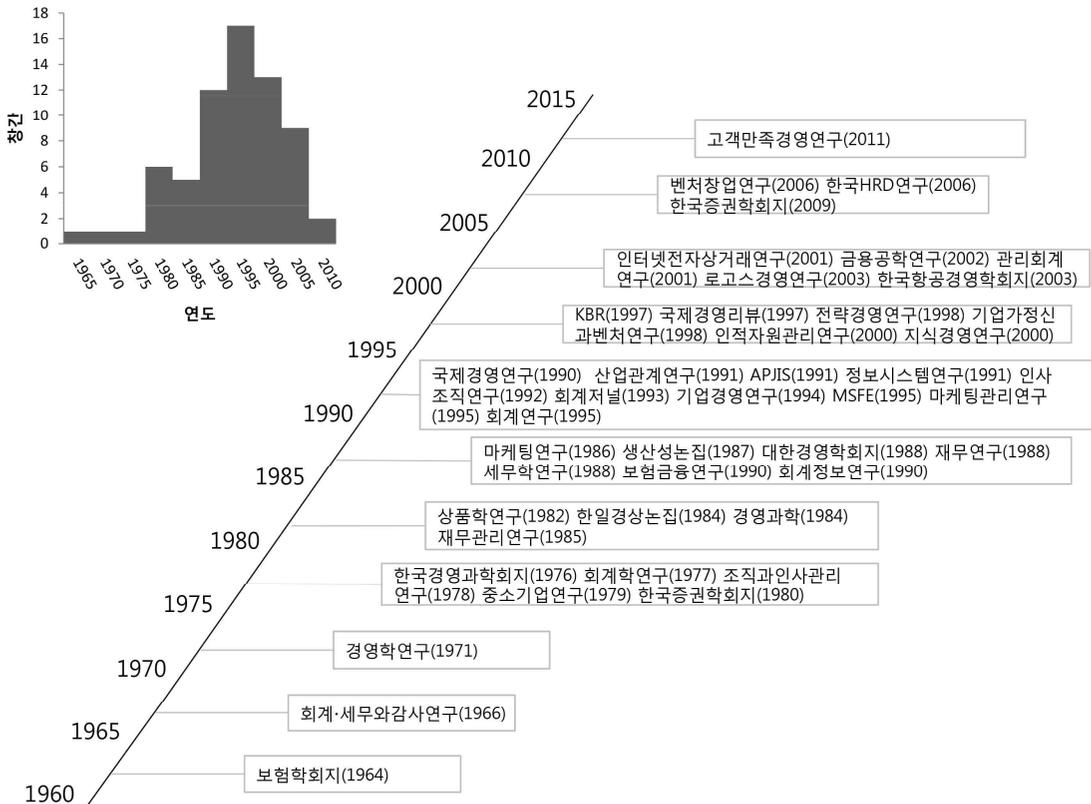
2.2 경영학연구를 통해 본 한국 경영학의 변화

1964년 창간된 ‘보험학회지,’ 1966년 창간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와 함께 경영학연구는 한국 근현대 한국 경영학사에 역사가 가장 긴 논문집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영학연구를 필두로 1976년에 ‘한국경영과학회지,’ 1977년에 ‘회계학연구,’ 1978년 ‘인사관리연구(현 조직과 인사관리 연구),’ 1985년 ‘재무관리연구,’ 1986년 ‘마케팅연구(현 마케팅 연구),’ 1990년 ‘국제경영연구,’ 1991년 ‘경영정보학 연구(현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998년 ‘전략경영연구’ 등이 발간되면서 한국의 경영 연구를 위한 토대가 정립되었다.

〈그림 3〉의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영학연구는 모든 경영학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시작했으며 보다 더 전문화된 영역의 지식 교류를 위한 세부 분야 학술지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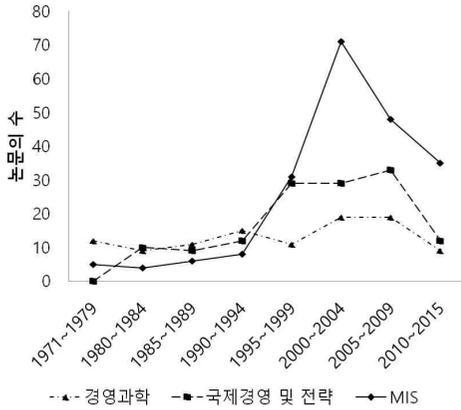
경영학연구가 다룰 수 있는 주제의 범위는 아주 넓으나 출판물이 모든 연구 업적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경영학연구에 출판된 논문들의 분야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경영학연구의 양적 성장이 영향을 미쳤지만 학계와 산업계의 지식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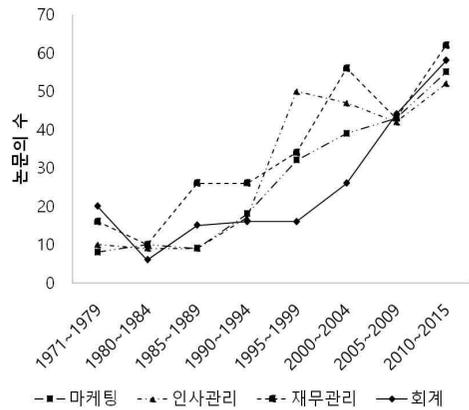


〈그림 3〉 국내 경영학 관련 학술지 발행 시기의 몇몇 사례와 한국연구재단의 기록

(a) 경영과학(생산 및 운영관리), 국제경영 및 전략, MIS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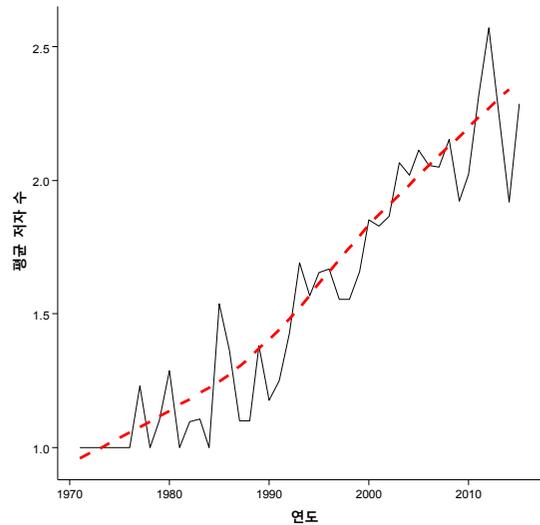
(b)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분야



〈그림 4〉 경영학연구 논문들의 주요 분야별 출판물 추이

기도 하다. 예를 들어 MIS의 경우 1994년 이전과 이후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이는 구조조정
의 주요 수단으로 정보기술이 각광을 받았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과, 인터넷 기반의 경제가 급성장
하였고, 정보기술 혁신이 고도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함
께 한다. 또한 마케팅 분야의 성장이나 그보다 앞선
시기의 인사조직 분야의 확대도 비선형적 증가 형태
를 보여준다. 회계나 재무 분야는 1990년대를 거쳐
급격한 양적 증가를 이루었다. 한편 전략이나 경영
과학 분야의 연구는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
한 사실은 경영학연구가 가진 위상이 시대별 경영
지식 축적의 전위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보다 특화
된 학술 영역의 출발을 위한 발원지 역할을 담당했
음을 짐작하게 한다.

경영학연구에 실렸던 논문들의 공저자 수 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 2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된다(〈그림 5〉 참조). 각 연도를
분석 단위로 하여 가중 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WLS)과 클리브랜드 시계열 평탄화 기법
(Cleveland, 1979)으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증가



〈그림 5〉 경영학연구 논문들의 공저자 추이

율은 0.035이며(p-value < 0.000, 수정된 $R^2 = 0.987$), 1970년대 단독 저자 위주에서 1990년대
1.5, 2000년대 후반 2명 이상의 복수 저자로 저자
수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협업을
통한 지식 생산의 도구로 경영학연구가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결과이거나 경영학연

구가 다루는 연구 대상을 적절한 시간 내에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학회가 지난 60년간 성장 발전하면서 경영학연구를 한국 경영학 지식을 축적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각각의 논문이 참고한 저작물의 종류를 판별함으로써 획득된다. 논문은 이론 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의 배경을 언급하거나 연구 결과의 기여점을 확인시키려는 목적으로 관련 논문들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주요 방법론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거나 학술적 권위를 획득하려는 목적, 2차 자료를 활용하려는 이유에서 서적을 참고하기도 한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본 클리브랜드 시계열 평탄화의 결과는 이 시기 이후에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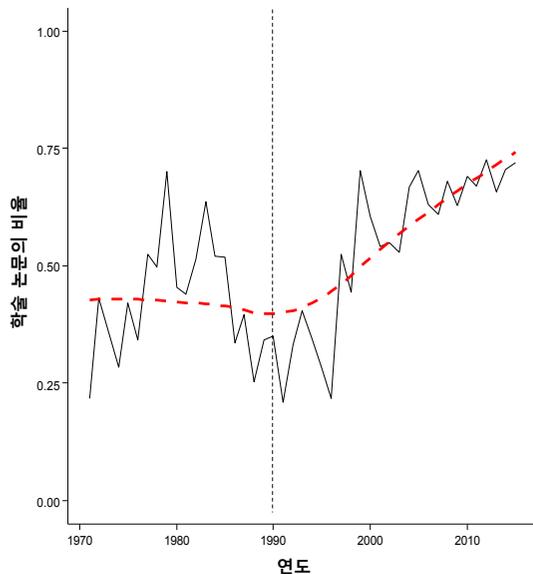
음을 보여준다. <그림 6>을 보면 발행 연도별 경영학연구에 실렸던 논문의 편당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활용한 비율이 1990년 이후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증가율 연 0.0154편, p-value < 0.000, 수정된 $R^2=0.995$). 또한 그 경향도 안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영학연구가 한국의 경영학자들 간의 학문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장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III. 연구 방법: 경제 발전을 고려한 키워드 분석

3.1 데이터 및 연구 방법

우리는 경영학연구의 논문들을 누리미디어의 디비피아(DBPia)를 통해 수집하였다. 디비피아(DBPia)는 경영학연구 논문들을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PDF 포맷의 파일로 저장하고 있으며 관련 서지 정보들을 HTML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우리는 디비피아가 서비스하는 1971년부터 2015년 5월 이전까지 경영학연구에 출판된 1,618개⁴⁾의 논문을 모두 다운로드받고 관련 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했다. 디비피아 서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 당 데이터 수집을 20개로 제한하였고, 1회 다운로드 이후 세션(Session)을 끊고 충분한 시간 간격을 주었다.

우리는 경영학연구의 출판물들에 담긴 내용들을 맥락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키워드 기반의 어형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MA) 방법을 채택했



<그림 6> 연도별 경영학연구 논문들의 참고문헌 중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

4) 본 연구에서는 편집자 사설(Editorial)과 서평은 제외하였다.

다.⁵⁾ 텍스트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어형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MA)이란 주어진 언어 형태를 어근, 접어, 품사 구조, 발화 구조, 맥락 등 다른 언어 요소들을 고려하여 식별, 분석 및 기술하는 방법이다(Wissema, 1976). 언어를 매개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주체와 그것을 수용하는 대상이 존재할 때,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책략이 있다는 가정은 어형 분석의 근간을 이룬다(Pidd, 2009).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는 여러 차원적 구조를 활용하며 이것이 사전에 합의된 형태(Shape)를 따른다는 전제가 어형 분석의 활용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Wissema, 1976). 어형 분석은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상황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고(Huckvale and Fang, 2002), 혁신 수용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에도 적용되기도 했다(Foray and Grüber, 1990). 대량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분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접목한 키워드 기반의 어형 분석 방법이 제안되었다(Yoon and Park, 2005). 이와 같은 방법은 혁신적 서비스의 신규 진입자의 동기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적 기초를 제공했고(Kim, Choe, Choi, and Park, 2008), 대량의 특허 자료를 분석하거나(Feng and Fuhai, 2012), 정보기술 기반의 경영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일에 활용되었다(Choi, Yi, and Lee, 2011). 이처럼 본 논문에서 활용된 분석 방법과 같이 대량의 어형 분석을 수행할 경우 컴퓨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적절하다(Hsieh and Shannon, 2005).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키워드 기반의 어형 분석을

수행한 Davatzikos, Valliant, Resnick, Prince, Letovsky, and Bryan(1996)이나 Lee, Song, and Park(2009)의 예도 본 연구의 방법론 적용에 참고가 되었다.

우리는 주제와 연구 문제 그리고 주요 연구성과의 기술에 관한 키워드에 집중했다. 어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제목, 키워드, 초록, 서론을 키워드 생성의 기본 재료로 삼았다. 우선 제목은 논문에서 최우선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이며 독자의 흥미를 끌고 연구 영역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키워드의 경우 논문의 주요 주제들을 기술하고 있어 제목과 함께 논의 영역을 한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다루어져 왔다.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저자나 편집자가 직접 논문에 기술한 단어들만을 지칭한다. 제목과 키워드는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함축적이지만 이를 초록과 서론에서 확장함으로써 논문의 저자는 독자에게 논문의 핵심 내용을 성공적으로 알릴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 도구들을 활용하여 단어를 품사 구조로 해체한 뒤 명사와 이를 직접 꾸며 주는 관형사를 중심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최대 거리(Window)를 적절히 조절한 결과, 경험적으로 네 단어 이내의 명사구들을 관련 대상으로 보았다. 어형 구조는 개별 문서의 구조 확보가 끝난 다음 사전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비관련 키워드(Stopping Words)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개선되었다. 덧붙여 이 과정에 영어로 쓰인 문건의 경우 별도로 품사 구조 분석(Part-of-Speech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기에서 예외를 보고한 경우에 수동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다.

5) 효율적인 어형 분석을 위해 주로 R을 활용했다. R은 통계 처리 이외에 텍스트 마이닝과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코딩의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키워드 기g 반의 M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적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MongoDB와 연동한 CAQDAS(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의 사용도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어형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 개발은 본 연구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

어형 구조를 이해하는 작업의 결과로 확보된 단어 사전들 가운데 비관련 단어들은 추려내고,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사전들로만 구성된 주요 어형들을 연구 주제를 기술하는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다수의 한자와 영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가장 근접한 한글 단어들로 바꾸었다.

키워드 사전은 세 가지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가진 한 개의 묶음으로 구성된다.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맥락 정보로 우리는 (1) 시기, (2) 분야, (3) 저자를 선택하고 이들 단어가 <그림 7>과 같이 한 묶음이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유재·김병규(2004)의 논문에서 '지식'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했는데 이는 2000년부터 2004년의 시기와, 마케팅 분야, 그리고 '브랜드'라는 동시출현 키워드 그리고 저자인 이유재, 김병규라는 맥락을 포함한다. 이때 시기는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이 게재된 시기를 말한다. 키워드 사전을 근간으로 우리는 시기와 주요 분야를 근거로 정보를 집약했다. 논문이 발표된 주요 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키워드 사전들이 보여주는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이 이 단계에서 수행되었다. 키워드 사전을 키워드의 빈도 분석과 동시 출현 분석(Co-occurrence Analysis) 및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해석하였고 의미가 불명확할 시에 직접 논문의 일부를 읽어 정확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
{
  "keyword" :
  , " name" : "지식"
  , " author" :[ "이유재" , "김병규" ]
  , " time_context" : "2000-2004"
  , " field_context" : "마케팅"
  , " in_window" : "브랜드"
}
```

<그림 7> 키워드 사전의 예시

3.2 시기 분류 및 주요 이슈

키워드 기반의 어형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다각도로 해석하려면 해당 키워드의 맥락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영학연구의 주요 저자가 한국의 경영학자라고 가정하고 이들이 살았던 시대적 흐름이 연구의 주요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1970년대에서 2010년 중반까지 연도별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대 상황이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를 확인했다. 연구매일경제신문이 한 해의 주요 사건들을 약 열 개의 주제로 묶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참조된 맥락 정보는 해당 표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시대적 분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표 1>은 한국의 경영 환경이 연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표 1> 매일경제신문 연도별 10대 주요 뉴스 정리

매일 경제 10대 뉴스, 연도 별		
1977	1978	1979
證券管理委(증권관리위) 발족	稅法改正(세법개정)과 來稅(내세)신설	여의도로 移轉(이전)
하루 去來(거래) 1천만 株(주) 돌파	長期沈滯(장기침체)와 投資者(투자자)시위	證券稅法(증권세법) 개정
3.9 建設株價(건설주가) 凍結(동결)	建設珠(건설주) 過熱(과열)과 폭락	不渡(부도)속출...8社
公募株(공모주) 請約貯蓄制(청약저축제)	酒類(주류)-食品珠(식품주) 새 人氣株(인기주)로	買入資金(매입자금) 지원
鮮昌企業(선창기업)허위公示(공시)	社債發行(사채발행)-有價增資(유상증자)러시	証市(증시) 연중침체
재무관리규정(財務管理規程) 제정	年末(연말)에 집중된 浮揚策(부양책)	창구사고 頻發(빈발)
請約不條理(청약부조리) 사건	거액窓口(창구)사고 빈발	國際聯盟(국제연맹) 가입
證券社(증권사) 大型化(대형화)	汎華建設(범화건설) 不渡(부도) 去來(거래)정지	自己信用(자기신용) 부활
流通金融(유통금융) 대폭축소	一般請約制度(일반청약제도) 폐지	6社(사) 上場(상장) 폐지
잇단 上場社(상장사)사고	公募(공모)규모 大型化(대형화)	證券社(증권사) 경영난

〈표 1〉 매일경제신문 연도별 10대 주요 뉴스 정리 (계속)

1980	1981	1982	
자금조달 1兆(조)원	외국인 受益證券(수익증권) 발매	實名制(실명제)논란	
証券社(증권사) 잇따른 창구사고	韓電(한전) 20년만에 上場(상장)폐지	어음詐欺(사기)사건	
매매去來(거래)정지 기업 늘어	최대去來量(거래량)기록... 30억株(주)	社債(사채)발행러시	
勤勞者(근로자) 증권저축	証券社(증권사) 자본금 판도변화	証市(증시)부양책	
証市(증시) 연중 沈滯圈(침체권)	監理委(감리위) 발족	決算期(결산기)변경	
해외起債(기채)에 참여	國際(국제)교류활발	9社上場폐지	
特擔(특담) 자금지원	巨額(거액)투자자들 위력떨쳐	証券社(증권사)대형화	
小型証券社(소형증권사)들 增資(증자)단행	投資者(투자자)들 집단示威(시위) 벌여	監理業務(감리업무)개시	
公募株(공모주) 일반請約制(청약제) 부활	幹事機關(간사기관) 社債(사채)주선 경쟁	債券(채권)당일決濟(결제)	
대규모 人事(인사)이동	企業(기업)내용 직접公示制(공시제)실시	國民投信(국민투신)출범	
1983	1984	1985	
부분 實名制(실명제) 시행	完實債(완매채) 규제	金融(금융)신상상품등장 은행에 예금몰려	
賣買(매매)주문 온라인化(화)	코리아펀드設立(설립)	自動車(자동차), 수출상품 총아로 등장	
資本(자본)시장 확충방안	現代建設(현대건설)공개	"外債(외채) 줄이자" 高速道(고속도) 휴일할증제 실시	
証券社(증권사) 합병-대형화	자원개발株(주) 선포	租減法(조감법) 우여곡절끝에 통과	
公募株(공모주) 청약 열기	投信(투신)등 機關長勢(기관장세)	產油國(산유국)의 꿈... 마두라油田(유전) 생산개시	
株主(주식)매입 자금지원	債券(채권) 場外(장외)거래제도화	3.4호개통 지하철시대 개막	
外受(외수)증권 추가 설정	주식時價發行(시가발행)	문어발경영警鐘(경종) 國際(국제)그룹 해체	
完賣(완매) 제도화 攻防(공방)	증권사 業務(업무)확대	줄어든 일자리 就業(취업)도 좁은문	
時價(시가) 발행제 도입	証券社(증권사) 해외진출	서울의 새 名物(명물) 63층빌딩 완공	
証券(증권) 집중 預託制(예탁제)	引受團(인수단) 협정폐지	韓美(한미)무역마찰 市場(시장)개방 진통	
1986	1987	1988	
국산차 美國(미국) 상륙	對美(대미)달러 환율 800원대붕괴	제 6共和國(공화국) 출범	
精油社(정유사) 첫매출 감소	폭등·락속 株價(주가)지수 5백 돌파	서울올림픽	
雙龍(쌍용) 東亞亞(동아자) 인수	韓美(한미) 통상마찰 가열	국정감사·정문회	
해외공장 진출 붐	뿌리내린 흑자 경제	北方(북방)교역시대 개막	
신발국제화 급진전	財界(재계)의 큰별 三星李(삼성리)회장 他界(타계)	金利(금리)자유화	
外國企業(외국기업) 상륙러시	財界(재계) 창업2세시대 개막	全前(전전)대통령사과·은둔	
줄이든 通商(통상)마찰	산업現場(현장) 회오리 勞使(노사)분규	환율 6백원대 진입	
合理化(합리화) 지정 파문	全國(전국)을 휩쓴 大洪水(대홍수)	海外(해외)여행 자유화	
經營權(경영권) 분쟁민발	산유국 꿈실현 임박	勞使(노사)분규 확산	
不實企業(부실기업) 정리	光陽(광양)제철1號(호)기 완공	8·10부동산투기억제	
1989	1990	1991	
中國(중국) 통제經濟(경제) 회귀	韓(한)·蘇(소)경협 급진전	南北(남북)합의서 서명	
蘇(소)·東歐(동구) 경제체제 改革(개혁)	5·10不動產(부동산) 매각결의	現代(현대) 稅(세)추징 파문	
美(미) 슈퍼301條(조)...무역마찰	株價(주가)폭락 투자자 항의시위	金利(금리) 자유화	
美(미)·蘇(소) 물타 頂上(정상)회담	農民(농민) UR거부요청 잇따라	水西(수서) 뇌물사건	
브래디 外債(외채)삭감플랜	집중豪雨(호우)...4천억 재산피해	斗山(두산) 폐철유출	
선진국 金利(금리)공조제치 붕괴	過消費(과소비) 추방 캠페인	新(신)도사 不實(부실)공사	
「13일 금요일」 뉴욕証市(증시) 대폭락	뜨거운 아파트 請約(청약)열기	地方(지방)시대 개막	
中(중)·蘇(소) 30년舊怨(구원)정산 관계正常化(정상화)		무역赤字(적자) 100弗(불)	
地球村(지구촌)보호 環境(환경)문제 관심고조		바닥모르는 株價(주가)	
亞太(아태)경협회의 常設(상설)기구化(화)		主力(주력)업체 선정	
1992	1993	1994	1995
31년만에 文民(문민)정부 탄생	文民(문민)정부 출범	경제부처 조직개편	한국은행 지폐유출 사건
경제성장률 急落(급락)	금융실명제 전격시행	金日星(김일성) 사망 기업인 방북	삼풍백화점붕괴·대구가스폭발참사
支店長(지점장)자살과 CD사건	司正(사정)한파... 금융·財界(재계)파문	삼성 승용차 허용	GNP 1만달러 수출 1천억달러
韓(한)·中(중) 수교	쌀 개방 農村(농촌)강타	폐기를 처분 부지선정	지방자치시대 개막
대규모 不渡(부도)사태	京釜(경부)고속철도 TGV 선정	WTO 비준	전직대통령구속·5·18특별법 제정
情報司(정보사)당 詐欺(사기)	大田(대전)엑스포 개최	민영화·韓通株(한통주) 입찰조작	부동산 실명제 실시
소비자物價(물가) 안정	2단계 금리자유화	성수대교 붕괴	對北(대북) 쌀 지원경수로 협상 타결
제2移動(이동)통신 선정 파문	金(김)대통령 APEC참석	盜版(도세)파문	인터넷 붐
實勢(실세)금리 하락	財界(재계) 대대적 경영혁신	원화(고)·주가 1천P 돌파	케이불TV시대 개막
不動產(부동산)값 속락	國際(국제) 梁(외)회장 惠載(현재)승소	가격파괴 확산	무궁화위성 발사

〈표 1〉 매일경제신문 연도별 10대 주요 뉴스 정리 (계속)

1996	1997	1998	1999	2000
全(전)·盧(노)비자금 재판	IMF 관리체제	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대우 해체 김우중회장 퇴진	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
OECD 가입	50년만의 정권교체	경기침체로 실업대란	주가급등·주가조작 사건	의약분업과 의료파업 사태
경상적자 2백억씩	문닫는 재벌그룹	금강산 관광선 북한 취항	벤처 활성화·인터넷 사업 붐	현대 '왕자의 난'
노동법개정(안) 마련	KAL기 관 잠사	대기업 퇴출 그룹 붕괴	외환위기 조기 극복	파주·홍성 구제역 파동
명예퇴직제 확산	1달러 2,000원 육박	금융기관 퇴출	제일은행 국외 매각	11·3 부실기업 퇴출
대기업 연쇄부도	黃長輝(황장휘) 망명	부동산가격 폭락	한자릿수 급리	정형준·진승현 게이트
2002년 월드컵 공동유치	금융개혁법(안) 처리	金利(금리) 한자릿수 시대	반도체 조호황	농민시위와 한전사태
北무장공비 잠수함침투	금융기관 첫 부도	전국 호우 380명 사망·실종	뮤추얼펀드 열풍	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재계총수 세대교체 바람	金賢哲(김현철) 구속	박세리 세계 제패	투신사 구조조정	IMT-2000사업자 선정
통신사업자 선정	비전코리아 부조연료보고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	보광·한진 거액 탈세사건	국민주택은행 합병

2001	2002	2003	2004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타계	노무현후보 대통령 당선	삼성, 플래시메모리 캐시카우로 개발	윤사마
차이나 열풍	北, 개방·核(핵) 사이 오락가락	LG카드 사태와 LG그룹 금융업 포기	탄핵
벤처 게이트	국가는 '웃음' 개인은 '휘청'	외국자본에 넘어간 하나로통신	김선일
반도체값 폭락 쇼크	은행권 M&A 사활권 경쟁	정몽헌 회장 투신사실	약(弱)달러
IMF체제 조기 졸업	주5일근무 시대 열려	재계 압박한 대선자금 수사	동북공정
인천공항·서해안고속도로 완공	월드컵과 붉은악마 열풍	SK 분식회계·소버린 주식매집	사이질
초저금리 시대 개막	집값 상승 90년이후 최고	KCC0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관습헌법
인론사 세무조사	네타즌 '사회의 주역' 부상	현대차 노조 경영참여 논란	엄지족
건강보험 재정파탄	한화, 대생 계열3사 인수	할인점 유통황제 등극	집착촌
조폭 신드롬	한·질레 FTA 타결	IT강국 먹칠한 인터넷 대란	줄기세포

2005	2006	2007	2008
황우석 줄기세포 진실논란	北 핵실험 강행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주식·부동산 급락...자산 반토막
불법도청 X파일 파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韓美 FTA협상	정책 실패...원화값 끝모로 추락
6자회담·9·19공동성명	꺾일줄 모르는 부동산	주가 2000돌파	국보 1호도 못지켜...송레문 소실
청계천 복원·새 중앙박물관	바다이야기에 허우적	한국인 23명 아프간 피랍	盧측근 비리...친형 건넌서 구속
방재청 경주로 최종 확정	한·미 FTA 찬반 갈려	삼성 비자금 의혹과 특검	물러난 이근희...삼성은 어디로
8·31부동산대책·중시 활황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美쇠고기 반대 촛불에 덮인 한국
국산김치서 기생충 알 검출	론스타 '혈값매입' 수사	태안 앞바다에 기름유출	최진실·안재환등 연연 잇단 자살
쌀시장 개방안 국회 비준	수출 3000억달러 돌파	가짜학위 신정아 스캔들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남북 냉기류
행정복합도시 합헌 결정	청와대 코드인사 파동	BBK 의혹과 이명박 특검	꼬리에 꼬리무는 김정일 이상실
48년만에 호주제 폐지	원화값 강세 수출 부담	5만·10만원권 발행 결정	우주도전 원년 첫 우주인 이소연

2009	2010	2011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 한국 위상 높여	연평도·천안함 도발 ... 北, 김정은 권력세습	17년 철권통치 北 김정일 사망
김수환·노무현·김대중, 고이 잡다소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 국격 높여	오세훈 사퇴...안철수 신드롬
연아·지애·미란, 감동을 준 그녀들	美·EU와 FTA 타결...수출 순항	ISD 논란속 한·미 FTA 비준
이재용·정의선·정용진, 오너 3세를 부상	코스피 3년만에 2000 고지 돌파	무상급식...복지 논쟁
세중시 원안수정 방침에 야권·총정 반발	스마트폰 확산 모바일리언 800만명	MBN 등 종합편성채널 출범
4대강 사업 첫삽, 내년 예산안 발목잡아	신한銀 빅3 내분...지배구조 흔들	연간 무역 1조달러 달성
제2의 나영이 막아라 아동성범죄 철폐	이재용·이부진 삼성 3세경영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북한 화폐개혁, 주민 반발 거센 후폭풍	6·2 지방선거 여당 패배	제일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절반의 성공' 나로호 궤도 진입엔 실패	세계를 놀라게한 한국 스포츠	선관위 홍피 디도스 공격 파문
아이폰 상륙, 스마트폰 大戰 불붙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화두로	K팝 열풍 아시아 넘어 유럽까지

2012	2013	2014
바닥 모르는 부동산 침체	장성택 처형 '예측불허 北'	세월호에 대한민국의 눈물
가계부채 1000조원 육박 '핵'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시대 개막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이 전 세계를 홀리다	국정원 댓글공방으로 날선 한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근희 회장
주요 국가 새로운 리더십 등극	자고나면 급등 '전세난민' 속출	삼성·한화 2조원 초대형 '빅딜'
미국 3차 무제한 양적완화	동양그룹 `불량CP' 5만여명 아우성	청와대 비선 의혹·문건유출 논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 도래	괴물 류현진 - 출루머신 주신수 활약	조현아 대한항공 '땀공 회항' 사태
삼성전자 최대 실적	영리 부품으로 원전도 멈췄다	軍 가혹행위...윤 일병 구타로 사망
삼성 vs 애플 특허 소송	소환조사·구속 ... 총수 수난시대	프란치스코 교황 역사적 방문
동반성장 화두로 떠올라	'혼외이들' 의혹 채동욱총장 사퇴	한·중 FTA 2년6개월 만에 타결
경제민주화 뜨거운 감자로	최장 철도파업 ... 경제도 발이 묶였다	홍행역사 새로 쓴 영화 '명량' 신드롬

어 불연속적인 단절도 경험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정치적 또는 외교적 변화에 따라 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거쳤음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들어 한국의 경제 규모가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험하였고, 냉전 구도의 약화로 옛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시작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이르러 지나친 외형적 확장이 경영의 질적 부실을 가져오면서 한국 기업은 구조조정 압박에 노출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벤처 열풍과 정보 기술 기반의 신경제의 도래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민주적 정치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며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하는 측면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1970년대와 달리 1980년대는 정권 이양을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열망이 크게 강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정권은 한국 경제의 질서 확립 및 위기 극복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200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주요 과제였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시작한 바를 계승하면서 표면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크게 네 개의 묶음으로 시대를 구분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분석의 꼭짓점으로 삼았고, 경제 정책적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분석의 묶음으로 삼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정권의 교체 시기도 고려했다.

IV. 시기별 주요 키워드를 통해 본 경영학 연구의 흐름

4.1 태동기(1971-1989)

이 시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두 번의 석유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던 시기이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인 1972년부터 1976년까지 평균 9.7%,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인 1977년부터 1981년까지 평균 5.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한국사 사전 편찬회, 2005), 1982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경제는 서울 올림픽을 거치며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10.1% 증가하였다(월드뱅크). 또한 1971년 10억 달러를 넘어섰던 수출은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경영학연구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1971-1979) 키워드로서 수출 및 성장, 기업공개, 회계, 경영교육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정부는 강력하게 기업공개를 유도하는 규제 및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기업 역시 성장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기업공개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수요도 많았을 것이다. 경영학연구는 제1권에서부터 고려대학교 지청 교수의 “기업금융과 자본구조: 최적자본구조이론의 전개와 한국 기업에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임익순 교수의 “한국의 증권금융” 등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연구 3권(1974)에서는 기업공개에 관한 5개의 연구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 후일 국무총리를 지낸 남덕우 재무부 장관, 벽산그룹 명예회장을 지낸 김인득 당시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 회장, 후일 교육부장관을 지낸 김덕중 서강대 교수, 고려대학교 조익순 교수, 신선균 미 델러웨어대 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기업공개 이슈를

조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중요 이슈에 대한 학문적 토론이 향후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같은 제3권에는 연세대 송자 교수의 “미국의 재무회계원칙(기준) 제정방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함께 실려있는데 실제로 기업공개와 맞물려 회계이론 및 회계기준 역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연구주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영학연구 제4권은 서울대 이정호 교수의 “회계기준의 제정방향,” 서강대 고정섭 교수의 “재무회계 기준설정을 위한 방법론과 기준체계에 관한 고찰,” 변공수 당시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부사장의 “주식의 평가에서 회계감사의 역할,” 고려대학교 조성하 교수의 “회계평가에 관한 소고,” 전북대학교 차재덕 교수의 “전통적 회계이론의 반성” 5편의 논문을 담았는데, 이들 연구 역시 후일 1981년 통일된 회계체도로써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전문적인 경영인을 길러내기 위한 경영교육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올바른 가치를 갖기 위한 경영철학이 중요한데, 예컨대 제2권에서는 백종현 서강대 교수의 “한

국대학 경영학교육에 관한 반성,” 연세대 한혜식 교수의 “경영학교수방법의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더 나은 경영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영철학 정립이 필요함을 연세대 오세철 교수가 “경영철학의 전환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통해 역설하였다. 또한 당시 경영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영학연구는 당시 가장 발전된 경영이론을 소개하는 장이었을 뿐 아니라 이론을 한국화하기 위한 담론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예컨대 1977년 제6권은 경영학,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회계 등의 한국화에 대해 다루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맞는 경영학에 대한 연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으며,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1979년 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옮기고 국제연맹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짐에 따라 이 시기에 자본시장에서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추휘석, 1980; 임용기, 1981; 김재만, 1982; 최운열, 1983, Yang, 1983; 1984). 한편 이 시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발전된 경영이론 및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경영과 비교하며,

〈표 2〉 태동기 주요키워드

1971~1979				1985~1989			
경영철학	자본구조	원가절감		주식가격결정	기업부실	조직몰입	
기업성장	증권금융	회계이론		리스	대리인이론	스트레스	
경영교육	주식시장	회계감사		자산재평가	기업성과	애착	
중소기업	기업공개	회계기준		금융기관	기업	몰입	
한국화	외국인투자	회계학	•••	재무비율	거래비용	여성	•••
수출무역	포트폴리오	이월효과		주식가격	업적평가	복지	
고도성장	증권시장			유상증자			
				옵션이론			
				현금배당			
1980~1984							
한국경영학	신제품	한국증권시장					
성패	혁신	주가예측					
역사	경쟁	주가변동					
일본적경영	기술도입	수익률					
한국기업	기술수용						
국제화			•••				
기업집단							
다각화							
수출							

또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았는데, 예컨대 1982년 제12권 제1호에 실린 서울대 조동성 교수의 “한국종합무역상사”와 같은 논문이 그 예이다. 또한 1983년 제13권 제1호에는 장찬섭 Lander College 교수의 “Comparative Analysis of Management Systems: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고시천 건국대 교수의 “경영의 국제비교-한·미·일을 중심으로-,” 연세대 정구현 교수의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General Trading Companies”와 같은 비교 연구 논문들이 실렸는데, 이들이 실렸던 제13권 제1호에는 1983년 춘계 연구발표회를 겸한 한·미 경영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며, 경영학회와 경영학연구는 국내 연구자들과 재미 학자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나라 학문 발전 및 정책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1985년부터 1989년 사이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열풍이 있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산평가와 기업의 경영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1977년부터 1984년까지는 매년 연말에 증권시장의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1985년부터는 연말에 보다 범위를 넓혀 경제 관련 이슈들을 선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중요한 뉴스로는 슈퍼 301 조로 대표되는 한미무역마찰이 1985년부터 거의 매년 주요 이슈로 선정되고 있었으며, 원화 강세가 이어져 1988년에는 환율 600원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진전되고 있었다. 특히 1986년에는 부도기업 정리, 1987년에는 범양상선 좌초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는데 따라서 기업 부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87년 제16권 제2호에 실린 “기업 부실 원인에 관한 연구”(황석하, 1987), “재무비율로 판단한 기업 부실 징후와 예측”(김건우, 1987)과 같은 논문은 시의적

절한 이슈의 연구를 통해 경영학 연구가 실제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주가 변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1986년 제15권 제2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가격변동의 안정 파레티안 분포가설의 검증”(성삼경·안진철, 1986), “인플레이션 예상과 주식가치”(조담, 1986), “경기변동과 보통주의 체계적 위험”(김권중, 1986) 등이 실렸다. 실제로 1987년에는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다 지수 500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러한 주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987, 88년에는 노사분규가 주요 이슈였는데, 이 시기에 노동자들의 환경이나 보상 등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도와 조직에착도에 미치는 영향”(조영호·오철환, 1985), “금융노조의 교섭이슈에 관한 역사적 분석”(박준성, 1986),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최종태, 1987)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초기 경영학 연구는 당시의 제도적·정책적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기업 경영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 1990년대(1990-1999)

1990년대 초반 우리 경제는 이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일경제 선정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주가폭락 투자자 항의시위”(1990), “바닥모르는 주가”(1991), “경제성장률 급락”(1992) 등이 뽑혀있는 것으로도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세계 대대적 경영혁신”(1993)과 “가격과파 확산”(1994) 등으로 대응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가 진전되던 시기였는데 1993년 UR 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에는 WTO가 비준되었다. 그러면서도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보호무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90

년대 초반 경영학연구는 이전의 기업가치 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경쟁력과 전략분야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략, 조직구조 및 기업성과: 사업부 수준에서의 실증적 연구”(이장우, 1990), “독점적 우위가 기업의 해외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장호, 1992),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한국기업의 경쟁우위강화방안”(지용희, 1994),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정구현, 1994)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소득이 늘어나고 해외로부터 수입도 늘어나던 시기였는데 이와 맞물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브랜드, 시장 반응, 시장점유율 같은 키워드들이 새

롭게 나타났다. “제품 및 브랜드 인출단서가 경쟁브랜드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한민희, 김인희, 1990), “시장점유율, 상표애호도 및 경쟁구조에 대한 마케팅믹스변수들의 효과분석”(임병훈, 채서일, 1994), “선호모형과 선택모형의 시장점유율 예측력 비교연구”(현정석, 1994)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유럽 소비자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제조국 이미지 연구: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산 자동차 중심으로”(한충민, 이병우, 1992) 와 같이 해외시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에 “베어링은행 파산”(1995), “일본 3안신화 붕괴⁶⁾”(1995) 등 해외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IMF 관리체제”(1997)와 이에

〈표 3〉 1990년대 주요키워드

1990~1994

경영자	브랜드	법인세	분권화	기업가치평가	
임금체계	광고	이자율	합병	성과	
직무소외	시장반응	회계제도	해외기업인수	성과측정	
능력	상표평가모델	조세회피	혁신저항	주식수익률	
조직특성	유인효과	회계변경	교섭	자본구조결정	
내부통제	노인소비자	회계정보	국제경쟁력		
비영리조직	시장점유율	회계이익	전략유형		
팀	프랜차이즈		소유구조		...
조직사회화					
직무만족					
과업특성					
노조					
재벌					

1995~1999

가치평가	경력관리	고객만족	인터넷	국제이전가격
기업윤리	대인관계	만족	전자금융	국제합작투자
기업평가	보상	불평행동	전자상거래	다국적기업
기회주의	인력관리	사용자만족	정보기술관리	아웃소싱성공
다운사이징	인센티브	서비스	정보기술투자	아웃소싱전략
부도예측	인적자원관리	서비스품질	정보효과	전략적 제휴
부실기업	임파워먼트	시장세분화	지식경영	진입장벽
성과평가	조직문화	시장지향성	지식교환	해외직접투자
신용등급	조직성과	시장효율성	학습효과	해외투자
신용등급변화	조직효과성	신뢰성	흡수능력	
위험관리	직무교육	신제품개발		
이익예측	직무특성			
인수합병	충성도			
적합성				
품질경영				

6) 3안이란 안심, 안전, 안정을 뜻하며,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고베지진, 맹독 가스 사건, 금융기관 도산으로 3안이 붕괴되었다는 것이 국제 부분의 10대 뉴스로 선정되었다.

따른 “경기침체로 실업대란”(1998)과 “대기업 퇴출, 그룹 붕괴”(1998)로 이어지는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IMF 이전과 이후에 이러한 위기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금융마케팅에서 신용특성을 이용한 신용위험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이명식, 1998), “주요거시경제변수와 KOSPI간의 실증적 영향도 분석: IMF이전과 이후의 비교”(조영경, 1999), “한국기업의 도산원인”(김건우, 1999)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성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조직특성과 개인별 혁신운동성과의 지각차이”(박운성, 김태형, 1996), “조직혁신에 관한 연구모형의 개발과 연구명제의 설정”(최만기, 이지우, 1998)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특히 이와 관련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토론되기 시작하였는데, “조직문화 프로필과 조직효과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가치 모형의 경험적 검증”(박상언, 김영조, 1995)을 시작으로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적합성”(전상호, 신용준, 1995), “조직문화유형별 GDSS 선택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정인근, 김기문, 윤중수, 1996), “조직문화와 전략에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박노윤, 1997), “조직문화적 특성과 성과”(강정애, 1997)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한편 매일경제가 선정한 1995년 10대 뉴스에는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였다. 바로 “인터넷”으로 그야말로 “돌풍”이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주요 현상 중 하나 역시 “벤처 활성화·인터넷 사업 붐”(1999)이었다.

인터넷에 대한 소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행정학과 언론정보학에서, 경영학 분야에서는 경영과학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서 먼저 소개되었는데, 경영학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당시 주요한 이슈였던 인터넷 결제 시스템(주재훈, 1998)과 인증 서비스(주재훈, 1999), 그리고 사용자의 라

이프스타일과 구매의사결정(김훈, 권순일, 1999)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4.3 2000년대(2000-2009)

“닷컴의 잇따른 몰락”(2000)으로 시작된 2000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로서 미국의 “회계부정사태”(2002) 및 우리나라 “벤처게이트”(2001) 등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환경 변화의 폭이 커진 시기였다. 2000년대 초반(2000-2004)에는 “IMF체제 조기 졸업”(2001)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조직 내 갈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국민-주택은행 합병”(2000) 등 대규모 인수합병 및 재벌기업 주력업종 재편, “반도체쇼크와 테헤란밸리 구조조정”(2001), “최악의 불황”(2004)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이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시장에 대한 연구가 보다 고객지향적인 면을 강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조직 갈등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리더와 팔로워,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및 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직무스트레스와 종업원 태도간의 관계에서 감성적 성향의 역할”(고종욱, 2001), “부하의 체면중시가 상사-부하간 교환관계 및 조직행동에 미친 영향”(이규만, 박경규, 2001), “부하가 인지한 상사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과 성과간 신뢰 및 가치일치의 매개효과 검증”(이진규, 박지환, 2003), “팔로워십 특성이 상사부하간 교환관계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양동훈, 구관모, 2005) 등이 그 예이다. 199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경영혁신에 관한 연구가 구조조정과 맞물려 “구조조정기업의 주가반응에 대한 연구: 화의와 회사정리를 중심으로”(이상우, 최기호, 2002), “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 재벌그룹의 변화: 위기와 조직관성의 영향에 대한 고찰”(최순규, 2003),

“외환위기 이후 은행 점포의 효율성 분석”(이상규, 김정인, 2003), “기업구조조정: 선행요인과 구조조정 성과에 관한 비판적 고찰”(권기환, 조동성, 2003) 등 구조조정의 성공 요인 및 성과 등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한편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고객과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두어 “서비스 접점종업원 지원이 고객의 서비스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윤만희, 2000), “서비스 종업원의 역할모호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남재, 강병서, 유경환, 2002), “CRM이 고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의 지각된 관계적 편익과 관계몰입의 매개적 역할”(이학식, 임지훈, 2003)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시기 새로 등장한 연구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벤처기업이었다. “기술가치평가 기법과 연구방향”(황규승, 2001), “벤처기업 경영투명성 수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한정화, 배종석, 2001), “우리나라 기업의 스톡 옵션 도입 패턴”(정승화, 이민수, 2001) 등 다각도의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2007), “지구 달구는 온난화 문제”(2007), “중 멜라민 파동...식품공포 확산”(2008) 등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 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는 지속가능경영이 경영학연구에서도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었다. “DEA를 활용한 공항운영자의 명성경쟁력 평가 지수에 관한 연구”(이원식, 차근호, 200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부금지출을 중심으로”(최운열, 이호선, 홍찬선, 2009)와 같은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2002년 KBS에서 방송되었던 겨울연가가 2003년 봄 NHK를 통해 소

〈표 4〉 2000년대 주요키워드

2000~2004

동기	고객지향성	공급사슬관리	기술수용모형
리더멤버교환이론	구매의향	대기시간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자기효능감	서비스접점	손실회피현상	블로그
직무스트레스	고객보상프로그램	수익성	온라인게임
역할스트레스	공시효과	균형성과표	이러닝
불평의도	관계해지의도	실물옵션	인터넷마케팅
변화에 대한 저항	구매의도	해외시장진출	지식습득
신뢰	구전	벤처기업	지식이전
조직공정성	플로우		
이직의도	재구매의도		
직장가정갈등	상호작용공정성		
인적자본			
직무성과			
집단효능감			

2005~2009

성과피드백	감정부조화	드라마	한국에 대한 이미지
애널리스트	감정적애착	멀티소스멀티유즈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이익 예측의 정확성	감정지능	문화콘텐츠	한글세계화
이익예측치	고객신뢰	문화콘텐츠산업	한글의 재창조
이익유연화	고객애호도	문화콘텐츠제품	한류
이익의질	공익연계마케팅	엔터테인먼트산업	한류에 대한 지각
이익지속성	서비스품질평가	영화산업	한류에 대한 태도
자기자본이익률	소비자태도	오픈마켓플레이스	한류 확산전략
사회사성과	제품차별화	영화수출프로젝트	
재무분석가의이익예측오차	가격프리미엄	원소스멀티유즈	
재무적성과	제품관여도		
투자효율성			
현금보유			

〈표 5〉 2010년대 주요키워드

2010~2015(.5)

긍정심리자본	서비스실패	정서지능	동적역량
자기자본비용	고객가치	감성지능	국제다각화
자기주식취득	내부마케팅	팀창의성	지배적디자인
타인자본비용	서비스회복	최고경영진	공급사슬성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응서	팀다양성	메세나
실물적이익조정	이미지향상동기	행동도	산업집중도
실제이익조정	회복만족	진성리더십	시장경쟁정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심리적 계약위반	자기표현행동	연구개발지출
초과현금	구전도	팀혁신행동	
부채비용	소비자귀인	창의성	
경영자예측정보	희소성메시지		
지속가능경영	브랜드매착		
불확실성회피	시장지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결속적 사회자본			
기업평판			
연결적 사회자본			

개되면서 일본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한류 및 콘텐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한국경영학회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2007 한국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논문 공모를 실시하여 이 중 우수논문 11편을 2007년 11월 경영학연구 제36권 제6호를 통해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드라마(이장우, 이강복, 2007) 및 TV프로그램(전태석, 윤성준, 2007)뿐 아니라, 영화(김미라, 김혜진, 2007; 이동기, 김지연, 박영은, 2007; 이상목, 김선혁, 이강산, 2007), 애니메이션(정우성, 박경민, 2007), 게임(장성용, 김상지, 송재용, 2007; 홍진환, 김준호, 임성준, 2007), e-스포츠(박종근, 2007), 영상 및 음악(배일현, 김장현, 2007)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의 성공전략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싱(김은영, 김은정, 2007)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연구를 통해 경영학연구가 한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4 2010년대(2010-2015년 5월)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불확실성에 대

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월가 점령 시위…분노의 확산”(2011), “그리스 재정 위기 유럽 확산”(2012), “미 한때 섰다운…가까스로 합의”(2013) 등 거시경제 불안요소가 있는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행동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의 불확실성,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관계: 정보시스템의 조절영향을 중심으로”(이장우, 장수덕, 2010), “불확실한 기업환경에서 경영자 이익예측과 발생액의 관계”(권수영, 최경수, 김경혜, 2012), “불확실한 환경 하의 전략적 이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봉진, 송상영, 2013) 등이 그 예이다. 이전의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었으며, 시장지향적인 연구도 마찬가지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역량과 체질 강화와 관련된 연구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동적 역량이 새롭게 키워드에 등장하게 되었다(권영철, 2010; 광기영, 홍문경, 2011; 정예지, 윤정구, 2013; 서창적, 이찬형, 2015). 또한 2011년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백원선, 2011; 임태균,

신현걸, 정석우, 2011; 배성호, 정석우, 오광욱, 2011; 심태섭, 배수진, 2013).

4.5 시대 변화에 따른 주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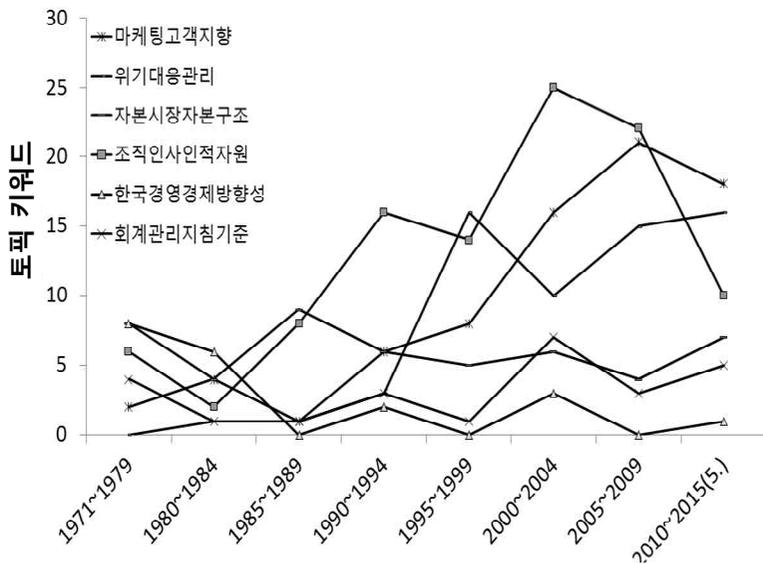
앞에서는 시대별로 강조된 연구주제에 대해 다루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및 학문의 발전, 그리고 세부 분야 학회 및 학회지 발전 등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중요 주제들이 경영학연구에 다뤄진 비중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그림 8>로 정리하였다.

먼저 한국 경영 및 경제 방향에 대한 연구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 태동기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시기를 지나며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영이론의 한국에 대한 적용, 한국적 경영의 발전방향, 경영교육의 방향, 경영철학의 정립 등의 주제가 이에 해당하는데, 경영학연구는 태동기에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자 및 경영인들에게 이론적·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자본시장 및 구조에 대한 연구와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는 정책적 이슈에 따라 부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본시장 형성과 회계기준 정립은 태동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기업 부실이 주요 이슈였던 1985-1989년에 자본시장 및 구조에 관한 연구가 다시 증가하였고,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다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1981년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고 1990년에 개정되었으며,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동기를 비롯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격경쟁력에 의한 수출 활성화와 내수시장 보호 등으로 고객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점차 가



주: 분류의 신뢰성 - Cohen's Kappa = 0.92

<그림 8> 시대 변화에 따른 주제 변화

격 이외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수입이 늘고 경쟁이 세계화됨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객지향적 연구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조직역량과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소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가격경쟁 외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조직역량과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으며, IMF 체제를 지나고 불확실성 하에서 혁신하는 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대응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IMF 관리 체제 때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자들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경영학연구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십여 년 간 경영학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연구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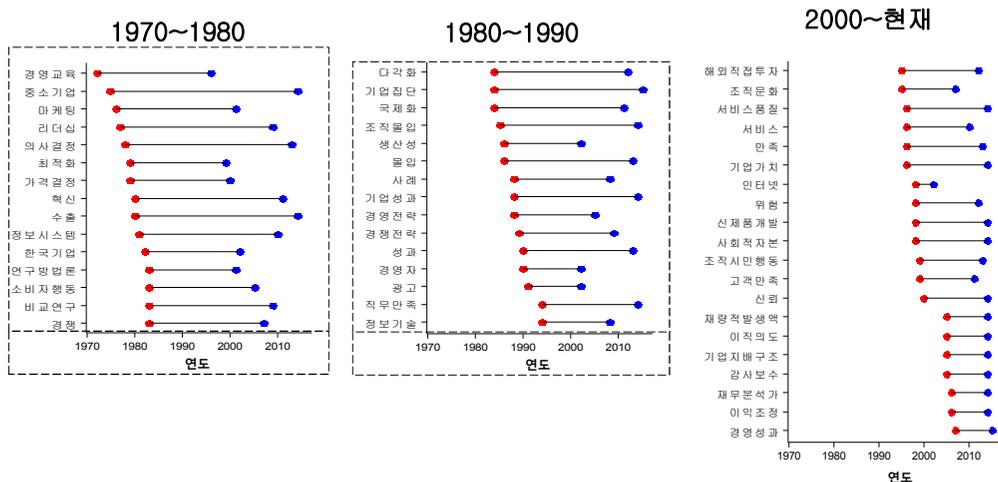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V. 키워드 수명주기 및 연관성 분석을 통해 본 경영학 연구의 흐름

5.1 키워드 수명주기 분석

경영학 연구는 경제성장단계 및 환경 변화 요소와 밀접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학 연구의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어떤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면 어떤 연구들이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림 9>의 클리브랜드 산점도는 주요 키워드가 언제 생성되고 언제 소멸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어떤 키워드의 생성과 소멸의 시기가 언제였나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9>는 X축에 시기를, Y축에 키워드를 나열하고 해당 키워드가 어떤 시기에 걸쳐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태동기와 1980년대 전반기까지 주요하게 나타난



<그림 9> 키워드 출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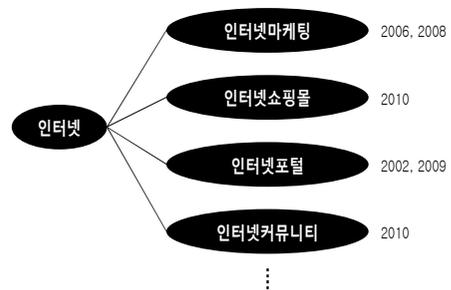
키워드들은 경영교육, 중소기업, 마케팅, 리더십, 의사결정, 최적화, 가격 결정, 혁신, 수출, 정보시스템, 한국기업, 연구방법론, 소비자행동, 비교연구, 경쟁 등이다. 이러한 키워드 중 중소기업이나 수출과 같은 키워드들은 현재까지도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영교육을 키워드로 사용한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영학연구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마케팅을 키워드로 사용한 연구도 2000년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경영학연구에 새로 나타난 키워드들은 다각화, 기업 집단, 국제화, 조직몰입, 생산성, 몰입, 사례, 기업 성과, 경영전략, 경쟁전략, 성과, 경영자, 광고, 직무만족, 정보기술 등인데 이들 중 과반수는 현재에도 연구의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산성, 경영 전략 및 경쟁전략, 경영자, 광고, 정보기술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키워드들은 해외직접투자, 조직문화, 서비스품질, 서비스, 만족, 기업가치, 인터넷, 위험, 신제품개발, 사회적자본, 조직시민행동, 고객만족, 신뢰, 재량적발생액, 이직 의도, 기업지배구조, 감사보수, 재무분석가, 이익조정, 경영성과 등인데 대부분은 현재까지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 하나의 연구분야로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그림 10>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후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쇼핑물, 인터넷 포털, 인터넷 커뮤니티 등 세분화된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이는 마케팅을 키워드로 한 연구가 2000년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나 경영전략을 키워드로 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분야가 하나

의 학문적 분야로 생성되고 분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경영학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고 따라서 이렇게 다양화된 연구가 다시 통합되는 융합적 연구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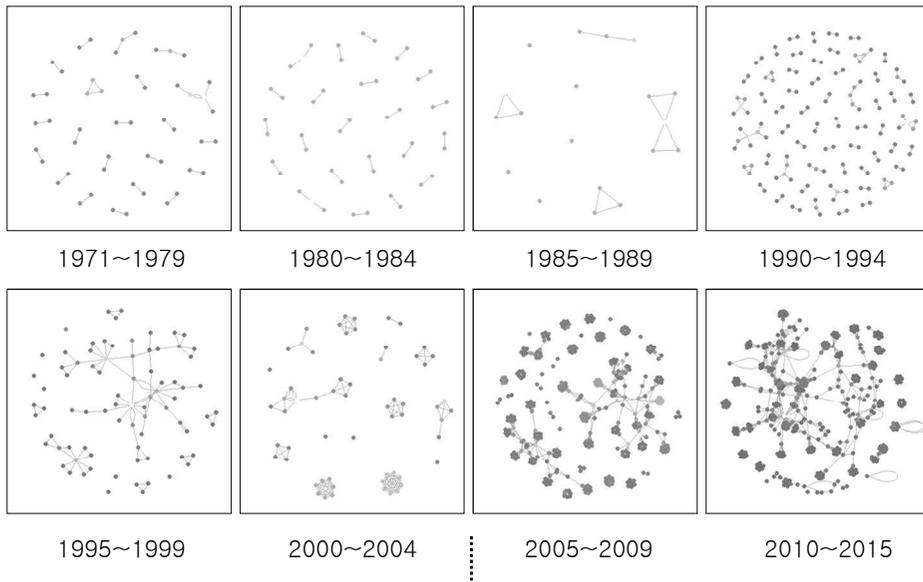


<그림 10> 연구분야의 세분화

5.2 키워드 연관성 네트워크 분석

연구의 주제는 여러 개의 키워드로 제시되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어떤 연구들이 서로 관련을 갖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상위 25%에 속하는 키워드들을 선택하여 이들 키워드를 공유할 경우 각 연구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그림 11>과 같이 네트워크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키워드를 공유하는 연구가 1990년대 전반까지는 상당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소수의 전문가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위 25%에 속하는 키워드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구가 이전에 비해 보다 다양해졌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심이 되는 분야가 생성되고 있는데,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몇 개의 키워드에 의해 연구관심사가



〈그림 11〉 키워드 연관성 네트워크

어느 정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전반의 특징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뚜렷하게 나누어지는데 이는 분야별로 특정 주제에 관심을 공유하는 반면 분야 간 주제 공유는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클러스터가 형성됨과 동시에 더 많은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선들이 생기고 있다.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2개의 큰 주제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는 클러스터를 잇는 연결선이 더 많아지고 많은 연구가 키워드 공유에 따라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작은 세상(small world)”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통한 학제간 연구가 보다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뢰”라는 키워드는 “만족”이나 “구전외도”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 평판”과도 연결된다. 또한 구전외도는 “충성도”를 매개로 “인터넷 쇼핑물

과 연결되면서 “브랜드 애착”이나 “서비스 실패”와 관련성을 가진다. 특히 경영학연구는 대부분의 다른 경영학 논문집들과 달리 여러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경영학연구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접근하는 담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대표 학술지인 경영학연구에 실린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을 통하여 국내 학술연구의 발전 추이를 조망하였다. 키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영학연구 논문은 당시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0년대 말 국내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게 되자 기업 부실, 기업 도산 등 경제 위기 관련 키워드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조조정, 조직혁신, 조직문화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들 연구는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기업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한류 열풍이 일어나면서 콘텐츠 산업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학연구 논문이 당시 중요한 경영 경제 현안을 반영하는 현실 적합성(relevance)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학문적 엄격성(rigor) 측면에서도 경영학연구 논문은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논문의 공저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참고문헌 중 학술논문 비중이 증가하였다. 논문의 공저자 수가 증가한 것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엄격성이 요구되면서 연구가 복잡화 대형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과 공헌이 강조되면서 참고문헌 중 학술논문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연구논문이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엄격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키워드 연관성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2000년 전반까지는 키워드 클러스터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었는데, 후반부터는 이들 개별 클러스터 간에 연결고리가 생기고 2010년 대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클러스터 간에 연구주제, 변수 공유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영학 내 개별 분야 간에 소통의 필요성과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연구는 조직이론, 마케팅, 경영전략, 재무관리, 회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박소윤·구동모·강보현, 2012), 재무분석가(배성호·임태균, 2012), 조직구성원(이수정·윤정구, 2011) 등 이해관계자 집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나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정작 내부구성원에게는 진정성이 결여된 홍보활동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수정·윤정구, 2011).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가지는 효과와 관련 기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야 간 연구결과의 공유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경영학연구가 좋은 답론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학연구는 지난 40여년 동안 대표 학술지로서 많은 발전을 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경영학연구가 해외 이론의 국내 도입 및 실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방 경영학”을 벗어나 “한국적 경영학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이다. 김인수 교수는 2000년 논문에서 국내 논문들이 “선진국의 이론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거나, 한국적 상황을 별로 고려함이 없이 선진국 이론의 연역적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93쪽).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국내 논문들이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조직이론과 경영전략 분야 국내 연구에 대한 비평적 고찰 논문에서 신동엽·김영규(2015)는 “미국 이론 패러다임들을 우리나라 실증 데이터로 검증하는 방식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지적하였다(43쪽). 이러한 연구는 기존 해외 이론에 제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적 경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 개발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한국적 경영학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기업을 둘러싼 한국적 맥락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Tsui, 2007). 연구주제를 선정할 때도 기존 해외 이론을 가지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국내 현상을 찾기보다는 한국적 맥락에 독특한 현상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의

원천으로 외면하기보다는 현상 자체와 그 맥락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토대로 이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현상을 기존 해외 이론으로 무장한 외부인의 시각이 아닌 내부인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Van de Ven and Jing, 2011). 예를 들면 한국 소비자의 의사결정 행동 중 기존 해외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독특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하영원, 2015).

경영학연구에서는 Virtual Special Issue를 계획하고 있다. Virtual Special Issue에서는 연구업적이 뛰어난 저자가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향후 연구방향을 정리할 것인데, 단순한 국내의 문헌의 정리를 넘어서 한국적 맥락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와 변수 등에 대한 논의가 담길 것이다. Virtual special issue가 한국적 경영학 이론 정립을 위한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경영학연구가 당면한 또 다른 이슈는 경영학 세부 분야 학술지가 증가하면서 이들 학술지와 차별화이다. 최근 들어 경영학 분야와 학술지는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있으나 경영현상과 이슈는 상호연결성과 복잡성이 증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야 간 소통과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영학연구가 분야 간 소통과 학제간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주제 또는 현상에 대한 학제간 논의를 담을 수 있는 특별호 기획 등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강정애(1997), "조직문화적 특성에 따른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6(3), 513-530.

고시천(1983), "경영의 국제비교," **경영학연구**, 13(1), 115-123.

고정섭(1975), "재무회계 기준설정을 위한 방법론과 기준 체계에 관한 고찰," **경영학연구**, 4, 61-92.

고종욱(2001), "직무스트레스와 종업원 태도간의 관계에서 감정적 성향의 역할," **경영학연구**, 30(3), 829-853.

곽기영, 홍문경(2011), "정보기술역량과 조직학습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0(4), 1075-1108.

권기환, 조동성(2003), "기업구조조정: 선행연구와 구조조정 성과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영학연구**, 32(6), 1533-1569.

권수영, 최경수, 김경혜(2012), "불확실한 기업환경에서 경영자 이익예측과 발생액의 관계," **경영학연구**, 41(2), 311-348.

권영철(2010), "다국적기업 현지자회사의 동적역량," **경영학연구**, 39(5), 1151-1175.

김진우(1987), "재무비율로 판단한 기업 부실 징후와 예측," **경영학연구**, 16(2), 263-316.

김진우(1999), "한국기업의 도산원인," **경영학연구**, 28(3), 771-798.

김권중(1986), "경기변동과 보통주의 체계적 위험," **경영학연구**, 15(2), 121-138.

김남재, 강병서, 유경환(2002), "서비스 종업원의 역할모호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1(5), 1165-1183.

김덕중(1974), "기업공개에 관한 연구: 기업공개와 자본시장," **경영학연구**, 3, 17-24.

김미라, 김혜전(2007), "한국영화의 해외 2차시장 수익증대 전략," **경영학연구**, 36(6), 1627-1652.

김봉진, 송상영(2013), "불확실한 환경 하의 전략적 일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2(4), 1027-1049.

김은영·김은정(2007),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제작에 소성과 효율적 제작방안," **경영학연구**, 36(6), 1581-1603.

김인득(1974), "기업공개에 관한 연구: 기업을 공개한 기업이 갖는 문제점," **경영학연구**, 3, 13-16.

- 김재만(1982), "Predictability of Common Stock Pric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경영학연구**, 11, 181-190.
- 김훈, 권순일(1999),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학연구**, 28(2), 353-371.
- 남택우(1974), "기업공개에 관한 연구: 기업공개와 자본시장의 역할," **경영학연구**, 3, 7-12.
- 박노윤(1997), "조직문화와 전략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학연구**, 26(2), 303-329.
- 박상언, 김영조(1995), "조직문화 프로필과 조직효과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4(3), 213-238.
- 박소운, 구동모, 강보현(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귀인, 지각 그리고 반응," **경영학연구**, 41(2), 173-200.
- 박운성, 김태형(1996), "조직특성과 개인별 혁신운동성과의 지각차이," **경영학연구**, 25(4), 161-195.
- 박종근(2007),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글로벌 산업화 발전전략," **경영학연구**, 36(6), 1545-1579.
- 박준성(1986), "금융노조의 교보이슈에 관한 역사적 분석," **경영학연구**, 16(1), 306-338.
- 배성호, 임태균(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 정확성과의 관계," **경영학연구**, 42(4), 1131-1156.
- 배성호, 정석우, 오광욱(2012), "K-IFRS 공시품질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분산도," **경영학연구**, 41(4), 837-866.
- 배일현, 김장현(2007), "한국엔터테인먼트 제품의 브랜드 진실성이 일본 소비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6(6), 1605-1626.
- 백원선(2011), "회계환경의 변화와 수익비용대응원칙," **경영학연구**, 40(1), 29-49.
- 백종현(1972), "한국대학 경영학교육에 관한 반성," **경영학연구**, 2, 148-161.
- 변공수(1975), "주식의 평가에서 회계감사의 역할," **경영학연구**, 4, 55-60.
- 서창적, 이찬형(2015), "동적역량이 기술혁신의 양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44(1), 305-330.
- 성삼경, 안진철(1986), "한국 주식이격변동의 안정 파레티안 분포가설의 검증," **경영학연구**, 15(2), 57-80.
- 송자(1974), "미국의 재무회계원칙 (기준) 제정방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경영학연구**, 3, 111-122.
- 신동엽, 김영규(2015), "한국의 거시조직 및 전략경영 연구 현황: 한국형 거시조직 및 전략경영 이론의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인사조직연구**, 23(1), 23-65.
- 신선균(1974), "미국증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경영학연구**, 3, 36-42.
- 심태섭, 배수진(2013),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리스규정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2(1), 85-120.
- 양동훈, 구관모(2005), "팔로워십 특성이 상사부하간 교환관계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4(3), 939-969.
- 오세철(1972), "경영철학의 전환을 통한 생산성향상," **경영학연구**, 2, 19-27.
- 윤만희(2000), "서비스 점점종업원 지원이 고객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29(2), 65-83.
- 이규만, 박경규(2001), "부하의 체면중시가 상사-부하간 교환관계 및 조직행동에 미친 영향," **경영학연구**, 30(4), 1093-1114.
- 이동기, 김지연, 박영은(2007), "한국영화의 수출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경영학연구**, 36(6), 1507-1521.
- 이명식(1998), "금융마케팅에서 신용특성을 이용한 신용위험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27(3), 631-659.
- 이상규·김정인(2003), "외환위기 이후 은행 점포의 효율성 분석," **경영학연구**, 32(4), 1033-1061.
- 이상목, 김선혁, 이강산(2007), "한류의 물결을 넘어서," **경영학연구**, 36(6), 1449-1474.
- 이상우, 최기호(2002), "구조조정기업의 추가반응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31(3), 723-749.
- 이수정, 윤정구(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야누스 효과," **경영학연구**, 40(4), 919-954.
- 이원식, 차근호(2007), "DEA를 활용한 공항운영자의 명성

- 경쟁력 평가지수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6(1), 205-227.
- 이유재, 김병규(2004), "아는 것이 힘? 사전 지식이 평가모드에 따른 선호역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33(1), 51-71.
- 이장우(1990), "전략, 조직구조 및 기업성과," **경영학연구**, 20(1), 147-172.
- 이장우, 이강복(2007), "한류드라마 콘텐츠의 국제경쟁력과 해외진출 전략," **경영학연구**, 36(6), 1419-1447.
- 이장우, 장수덕(2010), "환경의 불확실성,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관계," **경영학연구**, 39(5), 1363-1387.
- 이장호(1992), "독점적 우위가 기업의 해외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21(2), 249-280.
- 이정호(1975), "회계기준의 제정방향," **경영학연구**, 4, 93-104.
- 이진규, 박지환(2003), "부하가 인지한 상사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과 성과간 신뢰 및 가치일치의 매개효과 검증," **경영학연구**, 32(4), 925-954.
- 이학식, 임지훈(2003), "CRM이고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2(5), 1317-1347.
- 임병훈, 채서일(1994), "시장점유율, 상표애호도 및 경쟁구조에 대한 마케팅믹스변수들의 효과분석," **경영학연구**, 23(3), 281-312.
- 임웅기(1981), "Miller - Modigliani 이후의 자본구조이론과 한국기업의 자본구조," **경영학연구**, 10, 60-86.
- 임익순(1971), "한국의 증권금융," **경영학연구**, 1, 59-72.
- 임태균, 신현걸, 정석우(20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수시공시정보기준의 선택," **경영학연구**, 40(2), 297-323
- 장성용, 김상지, 송재용(2007), "소비자의 네트워크 구조와 외부성이 Born Global전략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6(6), 1389-1417.
- 전상호, 신용준(1995),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적합성이 행동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24(4), 153-186.
- 전태석, 윤성준(2007), "한국방송미디어 콘텐츠의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전략적 접근," **경영학연구**, 36(6), 1653-1675.
- 정구현(1994),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경영학연구**, 23(2), 129-144.
- 정승화, 이민수(2001), "우리나라 기업의 스톡 옵션 도입 패턴," **경영학연구**, 30(4), 1339-1363.
- 정예지, 윤정구(2013), "팀 자본인가, 팀 동적역량인가?" **경영학연구**, 42(1), 53-83.
- 정우성, 박경민(2007), "국내애니메이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경영학연구**, 36(6), 1475-1506.
- 정인근, 김기문, 윤종수(1996), "조직문화유형별 GDSS 선택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학연구**, 25(4), 35-72.
- 조담(1986), "인플레이션 예상과 주식가치," **경영학연구**, 15(2), 81-92.
- 조동성(1982), "한국종합무역상사," **경영학연구**, 12(1), 24-58.
- 조성하(1975), "회계평가에 관한 소고," **경영학연구**, 4, 47-50.
- 조영경(1999), "주요거시경제변수와 KOSPI 간의 실증적 영향도 분석," **경영학연구**, 28(3), 589-608..
- 조영호, 오철환(1985),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몰입도와 조직에착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15(1), 189-217.
- 조익순(1974),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문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 36-42.
- 주재훈(1998), "인터넷 결제시스템의 비교연구," **경영학연구**, 27(1), 25-62.
- 주재훈(1999), "전자인증 서비스의 가치 분석," **경영학연구**, 28(2), 415-438.
- 지용희(1994),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한국기업의 경쟁우위강화방안," **경영학연구**, 23(2), 145-158.
- 지칭(1971), "기업금융과 자본구조," **경영학연구**, 1, 73-94.
- 차재덕(1975), "전통적 회계이론의 반성," **경영학연구**, 4, 25-46.
- 최만기, 이지우(1998), "조직혁신에 관한 연구모형의 개발과 연구명제의 설정," **경영학연구**, 27(5), 1331-1360.
- 최순규(2003), "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 재벌그룹의 변화," **경영학연구**, 31(7), 1839-1863.
- 최운열(1983), "비체계적 재무 및 영업위험과 기업의 요구

- 수익률,” **경영학연구**, 12(2), 3-12.
- 최운열, 이호선, 홍찬선(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8(2), 407-432.
- 최종태(1987),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16(2), 31-82.
- 추휘석(1980), “투자자세가 최적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II),” **경영학연구**, 9, 91-102.
- 하여원(2015), “한국적 경영학 연구의 정립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 **한국경영학회 춘계 심포지엄 발표자료**.
- 한국경영학회(1987), **한국경영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연구발표회: 한국경영학의 30년 회고와 전망**.
- 한국사사전편찬회(2005),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 한민희, 김인회(1990), “제품 및 브랜드 인출단서가 경쟁브랜드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19(2), 67-86.
- 한정화, 배종석(2001), “벤처기업 경영투명성 수준의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30(4), 1291-1316.
- 한충민, 이병우(1992), “유럽 소비자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제조국 이미지 연구,” **경영학연구**, 21(2), 223-248.
- 한혜식(1972), “경영학교수방법의 실태조사연구: 서울시내 5개대학표본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2, 162-173.
- 현정석(1994), “선호모형과 선택모형의 시장점유율 예측력 비교연구,” **경영학연구**, 23(4), 81-112.
- 홍진환, 김준호, 임성준(2007), “한국온라인게임사의 국제화 방식 및 해외시장 경쟁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6(6), 1523-1543.
- 황규승(2001), “기술가치평가 기법과 연구방향,” **경영학연구**, 30(2), 451-473.
- 황석하(1987), “기업 부실 원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16(2), 100-164.
- Chang, C.-S.(1983), “Comparative Analysis of Management Systems: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경영학연구**, 13(1), 77-100.
- Choi, J., Yi, S., and Lee, K. C.(2011), “Analysis of Keyword Networks in Mis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Predicting Knowledge Evolution,” *Information and Management*, 48(8), 371-381.
- Cleveland, W. S.(1979), “Robust Locally Weighted Regression and Smoothing Scatterplot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4(368), 829-836.
- Davatzikos, C., Vaillant, M., Resnick, S. M., Prince, J. L., Letovsky, S., and Bryan, R. N.(1996). “A Computerized Approach for Morphological Analysis of the Corpus Callosum,”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Tomography*, 20(1), 88-97.
- Feng, X., and Fuhai, L.(2012), “Patent Text Mining and Informetric-Based Patent Technology Morphological Analysis: An Empirical Study,” *Technology Analysis and Strategic Management*, 24(5), 467-479.
- Foray, D., and Grübler, A.(1990), “Morphological Analysis, Diffusion and Lockout of Technologies: Ferrous Casting in France and the FRG,” *Research Policy*, 19(6), 535-550.
- Hsieh, H. F., and Shannon, S. E.(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 Huckvale, M., and Fang, A. C.(2002), “Using Phonologically-Constrained Morphological Analysis in Continuous Speech Recognition,” *Computer Speech and Language*, 16(2), 165-181.
- Kim, C., Choe, S., Choi, C., and Park, Y.(2008), “A Systematic Approach to New Mobile Service Crea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5(3), 762-771.
- Jung, K.- H.(1983),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General Trading Companies,” **경영학연구**, 13(1), 174-197.

- Lee, C., Song, B., and Park, Y.(2009). "Generation of New Service Concepts: A Morphology Analysis and Genetic Algorithm Approach,"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6(10), 12454-12460.
- Pidd, M.(2009), *Tools for Thinking: Modelling in Management Science*, John Wiley and Sons Ltd.
- Tsui, A. S.(2007), "From Homogenization to Pluralism: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in the Academy and Beyon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6), 1353-1364.
- Van de Ven, A. H. and Jing, R.(2011), "Indigenous Management Research in China from an Engaged Scholarship Perspectiv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8(1), 123-137.
- Wissema, J. G.(1976), "Morphological Analysis: Its Application to a Company TF Investigation," *Futures*, 8(2), 146-153.
- Yang, H.-C.(1983),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he Risk of a Firm," *경영학연구*, 13(1), 58-76.
- Yang, H.-C.(1984), "International Portfolio Diversification," *경영학연구*, 14(1), 159-175.
- Yoon, B., and Park, Y.(2005), "A Systematic Approach for Identifying Technology Opportunities: Keyword-Based Morphology Analysi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2(2), 145-160.

Tracking the Evolution of Business Studies in Korea via the Keywords in Korean Management Review

Hicheon Kim* · Young-Kyu Kim** · Taeky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o seek the future directions of Korean management studies by examining the papers published at Korean Management Review (KMR), the first and the best scholastic journal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all 1,618 articles published at Korean Management Review from 1971,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to May 2015 and analyzed main research topics for four periods of time: 1971-1989; 1990-1999; 2000-2009; 2010 and onwards. According to our analysis, from 1971 to 1989, KMR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by such studies as securities market, accounting standards and principles, establishment of business education and philosophy in the Korean context, introduction of up-to-date business and management theories, and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 and foreign states. In addition, in late 1980s, when economic conditions turned unfavorable, KMR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business efficiency by increasing publications on such critical issues as industrial relations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In 1990s, upon globalization, KMR increased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strategic management field significantly as well as studies on markets and brands. Before and after the IMF crisis, KMR published more studies related to economic crisis. In 2000s, KMR made uncertainties and innovation the important issues and introduced studies on start-ups and small entrepreneurial firms from various perspectives. Moreover, KMR gave more attention to research on *Hallyu* and contents as well as the Internet. Since 2010, KMR hosted more studies on uncertainties, sustainabili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By looking at these trends, this study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KMR has had the high

* Korea University

** Korea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Suwon

degree of relevance. This study has also performed analysis on life cycles and networks of keywords, based on which this paper suggests a possibility of more development in product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a few key research agenda through KMR. In addition, this study has observed the enhanced rigor by looking at changes in basic measures such as the weight of journal articles in references and the number of co-authors.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style management that will guide the futur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business theories in Korea on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Key Words: Korean Management Review (KMR), Korean business/management studies,
Keywords analysis